

1990년 『조선영화』 총평

1990년 『조선영화』는 크게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2월 『조선영화』 창간 200호를 맞이한 것이며, 둘째는 중반기 즈음에 발표된 김일성의 신년사 및 제 6기 제 17차 전원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구호가 새롭게 제시된 바 있다. 공산주의 세계사의 해체의 길에서 ‘우리 식’을 강조한 수령과 당의 구호가 북한 예술분야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사건은 당해 9월 1일에 개최된 제 2회 평양영화축전이다.

그 외에 주목할 부분으로는 영화 경제분야인데 90년 당시에 영화 촬영소의 독립 체산제가 처음으로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최이숙은 2회에 걸쳐 ‘영화촬영소경영활동에서 국가적 리익과 기억소리의 결합’(10월호)과 ‘영화촬영소경영활동에서 두 자극의 합리적 결합’(11월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제작비를 각기 촬영소가 맡는 독립체산제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구소련의 영화산업에 대한 ‘<모스필름>영화촬영소의 창작단들’(10월호)은 이와 연동되어 구소련의 영화산업도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린 바 있다.

1990년 2월호에 창간 200호를 맞이한 『조선영화』는 ‘당의 령도에 충성다하는 것을 영화예술발전의 근본담보’(2월호)라는 글을 게재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사실주의’를 더욱 고양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글은 당시 북한영화계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지금 적지 않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영화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그들의 예술적 기량이 높지 못하다 보니 현실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잡고도 그것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90년 북한영화계 내부에서는 북한영화계가 일정 정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이 내세운 것은 영화인의 예술적 기량을 증대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60년대 천리마 시기 북한영화를 따르자는 당 차원의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영화의 역사를 거슬러’라는 기획주제에 매 호 소개되는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영화 리스트는 대부분 60년대 제작된 영화들이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교과서’(1월호), ‘<인민교원>-참된 교육자에 대한 형상’(3월호), ‘꽃은 계속 피어야 한다-예술영화 <백일홍>에 대하여’(6월호), ‘희망을 내려친다-예술영화 <끝없어라 나의 희망>에 대하여’(8월호), ‘북극성은 오늘도 빛난다-예술영화 <북극성>에 대하여’(12월호) 등 60년대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에서 80년대 숨은 영웅의 형상화로 이어지는 공산주의적 인간형 문제 즉 시대에 맞는 전형 제시가 9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월호에 실린 ‘상승발전의 한길을 걷는 우리의 주체적영화예술’은 80년대 영화예술의 성과를 정리한 글로서 <민족의 태양>, <조선의 별> 등 수령형상영화를 대표로 당일군과 숨은 영웅 형상영화, 로동계급 전형창조, 군사물주제와 조국통일주제, 현실주제영화 등 다양한 주제와 예술적 창조성을 보여줬던 80년대 각종 영화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60년대 천리마 기수, 70년대 수령, 80년대 숨은 영웅 등에 이은 90년대 창조적 인물 형상이 무엇인지 주목을 요한다.

90년 『조선영화』에는 또한 북한 내부의 영화사나 소련, 중국, 쿠바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영화사가 아닌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10월호)과 프랑스의 누벨 바그(11월호) 등 서유럽의 자본주의 국가 예술영화운동을 비판적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신사실주의>영화에 대하여’, ‘<새 파도>과 영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문학예술작품들은 비판적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른 이들의 견지에서 서구의 예술영화들은 공산주의적 비판이 없는 암울한 미래, 낙오자 주인공 형상, 성적 내용 등이 지배적인 영화들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자본주의 영화의 일반성으로 확장 비판하고 있다.

김선아